읽을만한 책 ++++

RECOMMENDED BOOKS

무지개원리: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저자 차동엽 | 출판사 위즈앤비즈 | 2007/09 출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한국판 탈무드, 『무지개 원리』가 출간 100쇄를 기념하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새로운 예화들이 추가되어 보다 국제적이며 실천지향적인 해설이 곁들여졌다.
각계각층의 찬사와 지지를 받으며, 출간 이후 지속적인 베스트셀러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무지개 원리』는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저자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국내외 많은 서적을 섭렵하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빛을 남긴 사람들의 행적을 더듬어, 세계적으로 걸출한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다인의 '세마 이스라엘'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즉 무엇을 하든 '힘을 다하여(지성 계발)', '가슴을 다하여(감성 계발)', '목숨을 다하여(의지계발)' 이를 '거듭 거듭' 행한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진정한 전인적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다. 총 21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김복태 선생의 재미있고 핵심적인 삽화와 함께 전체 요약이라 할 수 있는 '행복 가이드'와 실천 지침인 'I CAN DO IT'이 요약되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연을 쫓는 아이 Kite runner

저자 할레드호세이니 | 역자 이미선 | 출판사 열림원 | 2007/12 출간

뉴욕 타임즈 120주 장기 베스트셀러, 2004년 미국도서관협회 '청소년이 읽을만한 성인 도서' 선정, 출간 이후 현재까지 줄곧 언론과 독자들의 열띤 반응을 얻고 있는『연을 쫓는 아이』개정판.
흥미진진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한 이 소설은 탈레반 세력이 군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우리를 데려가준다.
성장소설의 모티프와 함께 이 소설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주인공 아미르의 이야기 속에 치밀하게 짜여 들어가 있다. 소설은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기 이전부터 9.11 미국 테러사건 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미국이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시점까지 진행된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라도 이 소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그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파쉬툰인인 아미르와 하자라인 하인인 하산의 관계는 아프가니스탄에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갈등은 인종청소라는 명분하에 하자라인 대량학살을 야기했고 이것은 소설 속에서 무고한 하산이 탈레반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통해 나타난다. 아미르와 하산이 이복형제라는 사실과 아미르가 하산의 아들 소랍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런 인종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저자 공지영 | 출판사 오픈하우스 | 2008/03 출간

최근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 속에 녹여낸 『즐거운 나의 집』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공지영. 그녀가 이번에는 소설의 화자로 등장한 위녕을 대상으로 쓴 편지글 형식의 산문집을 펴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은 이 책 속에서 평범한 아이 엄마로서 가슴을 내밀고 대하는 딸에게 조근조근 자신의 인생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딸에게 '어머니 공지영'은 충고나 잔소리가 아닌 진솔한 경험담을 이야기하였다.
이 책은 공지영 작가만의 진솔한 면모를 마음껏 보여준다. 딸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 수영을 하겠다고 벼르기만 하지 결국엔 해내지 못하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 아무것도 하기 싫어 뒹굴 거리며 좋아하는 책에 푹 빠지는 모습…….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은 작가를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지영은 딸 위녕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 어제를 거름으로 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일러주는 책이다.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두려운,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는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의 연장선상에 있다.